

〈최우수작〉“안부모싱글 맘 story – 저 이렇게 살아요”

별건 아니지만 아이들도 나도 오랜만에 가져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큰 아이는 1등으로 중학교를 들어갔고, 작은 아이는 이제 4학년 학교에서 인정받는 〈책벌레〉가 되었다. 지금도 눈뜨면 책을 보고 잘 때까지 책을 읽고 있다. 난 지금 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우리 이야기를 언젠가 책을 써보리라 마음먹고 있다.

4년 전 내게 찾아온 불행을 원망하며 세상을 향해 독을 품었었습니다.

하루 아침 거리에 이유도 모르고 겪어야 했던 현실 사회의 기본적인 세무, 상식, 경제 개념도 없었던 나, 안일하게 산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 내야 했다.

4학년이었던 아들은 이제 중학생이고 1학년이었던 아이는 4학년이 되었다.

남을 의식하고 아빠얘기만 나오면 “지방에 계세요”하고 거짓말을 하던 아이들이었다.

이제는 학교에서 전화가 온다. 우리 아들을 가르치는 XX과목선생인데 어떡하면 그런 자신감을 가진 아이로 키울 수 있냐고 내게 물어오신다. 우리아이가 “전 지금 엄마랑만 살고 있어요” 솔직하게 웃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으며 엄마인 나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기쁘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거짓 행복을 만들지 않는다. 남에게 보이려고 꾸미지를 않고 지금

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자기 인생을 산다는 게 너무 고맙다.

지금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편한 건 아니다. 아직 풀어야 할 겪어야 할 문제가 계속 내게 다가올 것이다. 움츠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이 혼으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었던 아이들, 그들만의 고통이 있으리라 본다. 어쩔 더 아플지도... 견딜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아직은 잘 모른다. 이 고통이 무엇을 얻게 했는지...

아들만 돌린 나, 언젠가 저 아이들이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떠날 때 ... 엄마로 인해 떠나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난 내 길을 간다. 세대주인 나 ...

나를 따라다닐 〈이혼녀〉이라는 딱지...

딱지를 가리고 숨기고 지우려고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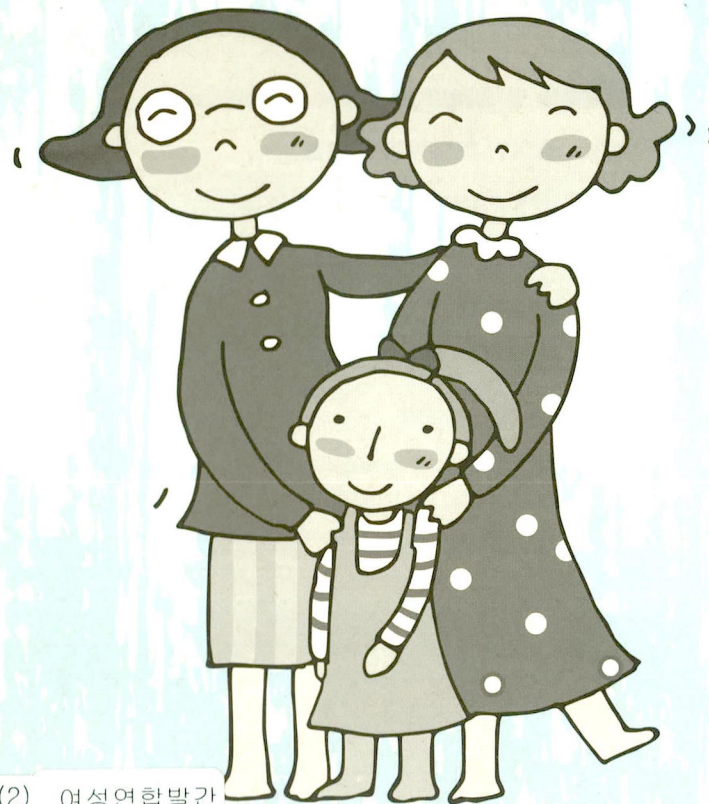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그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리라 결심한다.

2007. 9. 20

다시 시작하는 길을 위해서...

전국 여성 한부모 희망 뚝뚝! 한마당

2007. 10. 7(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시민공원 청소년 광장



2007-02-(2) 여성연합발간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KOREA WOMEN'S ASSOCIATION UNITED

주관 :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빈곤의여성화해소운동본부

후원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기

전국 여성 한부모 희망 쏙쏙! 한마당

사회 : 최광기(전문사회자)

여는마당 | 수원여성의 안부모가족울동팀 “우리가 만들어요”

개회선언

인사말

참가단체 및 참가자 소개

축사 | 장아진 여성가족부 장관

편지공모전 시상식 및 최우수작 낭독

뮤지컬 공연 | 부산여성의 안부모가족작립센터

담쟁이 퍼포먼스

안부모 선언

안부모 요구안 전달식

축하공연 | 인기가수 장윤정

대동놀이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 쏙쏙 한마당 참여부스 안내

- 담쟁이 요구안 쓰기 부스
- 한부모 그들이 궁금하다(한국여성노동자회)
- 여성건강 지킴이 부스(대한여한의사회)
- 여성건강 지킴이 부스(고려수지침 강동지회)
- 아이들 세상 : 풍선아트
- 아이들 세상 : 페이스페인팅

※ 참여부스는 12시 30분 부터 열립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출연진 소개

“소외된 이들의 마이크, 최광기”

그녀의 목소리만큼 정겨운 목소리가 또 있을까?!

1993년 우연히 도시빈민문화제 사회를 본 것을 계기로, 그녀가 소외된 이들을 대변하는 거리의 사회자로, 탄핵무효 촛불집회의 국민사회자로 활동해온지 어느덧 10여년이 훌쩍 넘었다. SBS라디오, CBS라디오를 비롯해 현재에는 EBS라디오 “최광기, 황현희의 시사난타”의 진행자로 서 이제는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자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 서있는 그녀, 최광기. 그녀야말로 전국 여성한부모 한마당의 사회자로 정말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거침없고 시원시원한 그녀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의 희망을 말하자!



사회 최광기(전문사회자)

“신세계 트로트가수 장윤정”

죽어 가던 그녀, 신세계 트로트바람을 몰고온 그녀, 장윤정.



축하공연 장윤정(가수)

1999년 강변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하여 트로트가수로 변신한 이후 ‘어머나’, ‘짹짹’, ‘이따따따’, ‘콩깍지’ 등 무수한 노래를 히트시키며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수, 장윤정.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로 돌려주겠다며 사회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그녀는, 실제 지난해 모 공중파 프로그램 1년치 출연료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고 봄·가을로 소아암환자 위문공연을 가졌으며 한국복지재단의 홍보대사도 맡고 있다. 트로트를 통해 서민들의 애환과 설움,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며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감성을 가진 그녀, 장윤정을 만난다.

| 감사합니다 |

바쁜 일정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공연해 주신 가수 장윤정 님, 한부모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참석해 주신 대한여한의사회와 고려수지침 강동지회, 한부모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 화장품을 후원해 주신 (주)아모레퍼시픽, 한부모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주)리트코, 그리고 이번 행사를 위해 먼 곳에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리처드 보아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대 요구안

한부모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5대 요구

여성한부모 가정은 사별과 이혼, 남편의 유기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혼자 책임지게 되면서 정서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빈곤예방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1. 한부모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차별과 소외속에 있는 한부모에게 한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mento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기 힘든 한부모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정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부모동료상담, 자녀양육상담, 일자리상담, 교육·보육문제 등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사회정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이 절실합니다.

2. 직업교육기회와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간 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이를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후 취업연계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장무료 직업훈련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으며 일부 직업훈련과목(컴퓨터 강좌 등)의 경우 여성가장을 위한 훈련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교육 이수 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마저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업교육기회와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3.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대상 한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50% 계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혼이나 사별 후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소유, 생계를 위한 자동차 소유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가정은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기도 전에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101% - 150%계층의 한부모 가족에게 이혼이나 사별 후 최초 2년간 '한부모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심리적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위한 안정적 직업훈련, 한부모가족의 정서·심리 및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안정적 소득보장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부모자립지원금'은 향후 한부모가족이 자립을 위한 주요 원동력이며, 적합한 일자리나 사회복지지원책이 없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정책입니다.

4. 저소득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의료보호가 절실합니다.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각종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최저생계비 130%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한부모의 경우, 의료비가 부담스럽고 생계를 위해 일을 쉴 수 없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가장인 한부모가 노동력을 상실하면 소득이 없는 한부모가정은 결국 수급자가 되며,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가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최저빈곤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5.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해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는 한부모 가족이 자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제도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가 안정되면 삶의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여성 한부모 가족 선언문

우리는 가족 구성에 대한 어떤 차별과 편견 없이 존중받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당연한 여성한부모이다. 우리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성 한부모를 비정상, 결손가족이라고 보는 편견에 반대하며 '한' 부모로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여성과 한부모라는 이중의 사회적·제도적 차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와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부모가 된 것을 개인적 운명으로 생각해 왔지만 <전국여성한부모 '쑥쑥' 한마당> 참여를 계기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위해 세상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무한한 생명력과 치유력을 가진 '쑥' 처럼 '쑥쑥' 희망을 만들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인간다운 삶, 행복한 삶,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다음과 같이 여성 한부모 가족의 권리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만드는 주체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양' 부모 가족개념을 넘어 '한' 부모로서 충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의 자녀들은 가족의 소득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양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 우리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며,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직업 훈련 및 연계, 주거 및 의료 보장, 안정된 일자리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007년 10월 7일

전국여성한부모 희망 '쑥쑥' 한마당 참가자 일동



전국 여성 한부모 희망 쑥쑥! 한마당

함께 불러요 한부모 노가바

당당한 한부모 (당돌한 여자 개사)

우리모두 필요한 거 맞췄, 무상의료 무상교육 맞췄
알아요 그대 마음을 안보고도 느낄 수가 있죠

우리 모두 필요한 거 맞췄 무상주거 무상보육 맞췄
알아야 그대 마음을 안보고도 느낄 수가 있죠

한부모가족자립지원확대해요 아~동양육비를 인상해요
우리 애들 함께 키워요 미래의 나~라 기둥~

야이야이 야이야이 바뀌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바뀌요
행복을 앞당기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야이야이 야이야이 맞아요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당당한 엄마이길 원해요

-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개사 -

한국여성단체연합과
SBS 라디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가 함께한
「여성한부모 희망 쏙쏙! 편지 공모」

- 사연응모기간 : 2007년 9월 10일 ~ 9월 21일 (12일간)
- 사연응모방법 : SBS 라디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사연방 (※ 인터넷 게시판)
- 사연응모통수 : 총 35통
- 사연모집홍보 : SBS 라디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게시판, 방송공지
여성연합 이사회 단체메일 발송
여성연합 홈페이지 공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공지
- 심사위원 : 오한숙희 여성학자 (심사위원장)
김직상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대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심사기준 :
 - 1) **한부모로서의 주체성** 한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堂堂하게 살아가는 것
 - 2) **노력과 의지** 사회편견을 극복하고堂堂하게 살아가는 모습
 - 3) **사회에 대한 태도와 포부**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 적극적인 삶의 태도
 - 4) **글 구성력**
- 수상내용 :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5명 각 20만원
- 시상식 : 10월 7일 (일) 전국 여성한부모 희망 쏙쏙 한마당 행사현장
10월 중 SBS 라디오 이경실의 세상을 만나자 수상작 방송예정

수상작

최우수 “한부모 싱글맘 스토리 - 저 이렇게 살아요” / 민병순
우수 “한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 조남민
우수 “희망날개” / 조이한
우수 “나는 이렇게 살았다” / 윤복자
우수 “터널을 지나다” / 권명애
우수 “세 잎 클로버 인생” / 박경옥

〈최우수작〉“한부모싱글맘 story - 저 이렇게 살아요.”

민 병 순

울지 않고 이제 이런 글도 쓸 날이 오다니 웃음
이 난다. 저 이렇게 살아요.

... 10년의 흔적이 없어질 날

꼭 4년 전이에요. 집으로 등기 하나 날라 왔습니
다.
예상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게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장마를 앞두고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15일 만 있으면 방학이었죠.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어떡하든 움직여야 했죠.
내용도 모르고 누구에게 물을 수도 없었고 그저
대답 없는 메아리만 울릴 뿐...
집을 비우고 나가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하루아
침에 이유도 모르고 전 집을 임시로 보관하기로
하고 트렁크 가방 하나 끌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었지만 초4학년, 1
학년 아이가 시험 중이라 학교는 보내야 했죠.

아이들에게 잔돈을 쥐어주고 학교가 끝나거든
집 근처 도서관으로 오라고 말을 했고 등교를 시
켰죠. 보름만 참으면 방학이니 그 때는 할머니
집으로 가라며 보름만 참자고 말을 했습니다. 이
렇게 갑자기 4명에서 3명으로 생활이 시작 되
었습니다.

... 드러난 어두운 그림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낸 후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잘 가지도 않던 낯선 도서관 일단 앉아서 어디부

터 뭘 해야 할 지 캄캄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잃으
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수소문 했지만 연락
이 닿지 않았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내 전재산인 가방을 도서관 사물함에 집어넣
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집에
온 우편물을 가지고 직접 알아보고 왜 집이 국가
에 공매가 되었어야 했는지 분당으로, 서울 세무
소로 뛰어다니니 그 이유가 들어나기 시작했습
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 도박에 정신을
팔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팔름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현실 내 이름
으로 모든 걸 만들어 내 앞으로 설정이 되어있어
제 집이 공매로 인해 공중분해 된 것입니다. 여
기저기 내 이름으로 모든 게 저질러져 있었습니
다. 난 본의 아니게 경찰서로 세무서로 불려다녔
죠. 가는 곳 마다 저를 책망하기 보다는 모두들
쓰쓸한 표정을 지으며 오히려 저를 도와주었습
니다. 나의 10년 추억과 사랑이 끝나가고 있었
죠.

너무 어리석은 나

너무 안일하게 나약하게 믿었던 제가 죽이고 싶
도록 싫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
고 전화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제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은 변명과 억울
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준 생활비도
친정아버지 카드를 사용한 것이었고 그것 또한
밀려 있었죠. 끝없는 거짓말 ... 거기에 오랜만에

본 눈빛은 우리의 가족이 아닌 낯선 눈빛이었습
니다.

오랜만에 만난 시간에도 아이를 데리고 도박장
에 갈 정도였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에게 말하
면 너 다시는 안본다〉고 협박을 했죠.

또 한번 버려진 아이들

그 여름 헤어졌습니다. 약속을 했죠. 아이는 잘
키우겠다길래 위자료도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사회활동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쉽게 5분만에 끝났습니다 내 추억
이 …. 그렇게 아이를 보지 못한 며칠이 지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xx엄마십니까”

“여기 XX찜질방인데요 10일 넘도록 나가지도
않고 있거든요…. 저 그리고 아이가 찜질방에서
손님 돈을…”

그렇게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
들과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번엔
친정 식구들이 저희를 멀리했습니다.

제2의 집…

시원한 가을이 왔지만 여전히 우리 집은 임시콘
테이너에 있었고 잘 곳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
죠. 잠은 근처 여관에서 임시로 자기로 했고 낮
에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

간에 가까이 사는 오빠한테 잠만 재워달라고 말
했지만 조카가 고등학생이고 우리아이들은 초
등학생이라 시끄러워 올케가 싫어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학교를 보내고 난 다음 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의문을 가지고 책
을 미친 듯이 읽었고, 중간에 전자정보실로 올라
가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은 방과
후 도서관으로 와서 책보고 숙제 하고 도서관이
끝나면 김밥 한 줄로 셋이 나누어 먹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의 후유증

1학년 아이는 학교에서 설사를 시작해서 담임한
테 맨날 웃가지고 불러갔습니다. 4학년 큰아이
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얼굴에 번져 모
자로 가려야 했고 병원을 다녔지만 나아지지 않
았습니다. 정말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학원생활로 공부할 때 우리 아
이들은 알 수 없는 병과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으로 아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어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온갖 욕만 들어
야 했던 아이들…. 책을 보면서 눈물 흘리던 모
습 지금도 아픕니다.

아이들의 몫

큰아이가 화가 나서 돌아와서 말합니다.

“엄마 수업시간에 쪽지가 날아와요”

“너네 이혼했다며 엄마랑 산다며 사실이야? 우
리 엄마가 그러더라”

아무 말도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책을 읽
게 만 해 줄뿐 그 땐 저도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
라 뭐라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가족사진이 필요하다고 내 놓으라
합니다.

“가족사진 없는데 어떡하라고” 화가 났습니다.
우리끼리 찍은 사진 가져가면 안 되냐고 물었
더니 안된답니다.

아 이렇구나 이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
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제적 고통

방 하나를 겨우 얻어서 집을 옮기고 새벽엔 〈신
문배달〉을 했고 잠깐 자다가 오후엔 학원강사
자리를 구해서 11시까지 일을 하고 주말엔 편의
점서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도 잘 되지 않
아 금방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했고 점점 아이들
이 귀찮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리는 집
안일…. 늘 허기진 아이들…. 주말만 되면 쓸쓸
해하는 아이들…. 밖으로만 도는 아이들….

명절이 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도 가지 않
습니다. 세배돈 많이 받았다고 친구들이 말하면
화가 난다며 거칠어지는 아이들…. 점점 지쳐가
고 저금은 할 수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빨이 깨지는 사고가 나서 부어두었던
아이 보험이 생각나 보험회사로 전화했더니 “이
미 몇 달 전에 아빠가 해약해갔다”는 말을 들어
야했죠.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앞으로 들었던
적금도 모두 해약해갔더군요. 같이 살지 않아도
적금이나 저금을 해약해 쓸 수 있다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 적금까지…. 아이가 그
러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시 도서관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요구만 하는 아이들 땀에 지쳐가고 말도 거칠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입이 나온 아이
들 억지로 도서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
〈박물관〉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지하철을 타
게 했고 무료행사를 열심히 참석했고…. 난 책
에 의지하며 울었다가 웃었다가 책을 읽으며
목록을 완성했고 아이들도 열심히 쓰고 적게
했습니다.

도서관에 온 전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XX도서관입니다, 이번에 가족다독상으
로 선정되었어요”